

성구어의 대비연구*

-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중심으로 -

김원식(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언어학의 여러 세부 분야에서 대비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1960년대 후반에 속어에 대한 언어간 일련의 대비연구 시도가 있었다.¹⁾ 이 시기에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서 성구어의 일부를 대비하거나 대비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성구어 자료를 이용하였다(Eckert 1979; Gottschalk 1975; Czochralski 1979; Wandruszka 1979; Raichstejn 1980; Hessky 1980, 1981, 1987; Schemann 1981; Bardosi 1982; Mayer 1983); Korhonen(1995, 1999).

가장 광범위한 성구어의 대비연구는 Raichstejn의 러시아어와 독일어 성구어에 관한 연구였다. 그는 연구대상이 완전하지는 못했으나 구조적 차원이나 의미적 차원에서 성구어의 분류를 바탕으로 러시아어와 독일어의 성구어에 초점을 맞추어 대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성구어 대비를 언어간의 형식적-내용적 관점과 기능-내용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언어의 성구어간의 등가성이나 방법론적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성구어의 대비연구는 독일어와 러시아어, 폴투갈어, 헝가리어, 핀란드어와 같은 유럽어라는 거의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언어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들 유럽 언어의 성구어의 중요한 공통적인 원전은 고대와 중세의 문헌과 성경이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금언, 격언 및 명문장과 인구에 회자하는 어구와 속담은 학교교육이나 번역된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속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익숙한 개념이며 “관용어”, “관용구”, “성구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광의의 속어를 칭하는 “성구어”를 쓰기로 한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유럽문화권의 공통의 정신적 자산을 형성해왔다. 이들 성구어들이 상당한 등가성을 갖는 근거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들을 들 수 있다. 1) 역사와 사회 변천과정의 공통성 2) 동일한 윤리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특정한 표현의 동일한 상징성 3) 관습과 민속적 풍습의 공통성 4)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의 직접적인 수용 등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²⁾

이 논문에서는 언어유형이나 어족 Sprachfamilie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독일어와 한국어의 성구어나 성구어적 표현을 대비하여 공통점과 상이성을 밝히려고 한다. 이 작업의 출발점은 독일어 성구어를 출발점으로 삼아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성구어를 비교한다. 두 언어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형식-내용적 측면보다는 기능-내용적 측면에서 의미의 등가성을 중시한다. 이 논문에서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와 성구어적 표현을 대비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등가성을 기준으로 유사성과 공통성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과 관습은 물론, 민속적 풍습이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이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독일어 성구어 말 뭉치는 Agricola ((1977), Duden Bd. 11(2001), Röhrich(1992), Duden Universal- wörterbuch(2003)외에 독일어 연구원(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IDS)의 “Cosmas II-Clinent v3.4.1”을 이용하였다. 한국어 성구어 말 뭉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한국민속상징사전(1995)을 참조하였다.

2. 유사성과 공통성

라틴어에서 유래한 “민심은 천심이다”³⁾라는 격언과 같이 등가성을 나타내는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는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고전적 성구어로서 그 원전이 고대나 중세 또는 문학작품이나 성서에서 비롯된 성구어가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신체어휘 Somatismen 성구어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구어와 성구어적 표현의 문헌적 출처나 원형성 Originalität은

2) Vgl. R. Hessky(1987) S. 95

3) 라틴어 격언: “Vox populi, vox Dei”(국민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2.1. 고전적 성구어

고전적 성구어는 독일어와 한국어 외의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⁴⁾ 구약과 신약성서에서 유래한 성구어는 고전적 성구어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는 성서의 우리말 번역을 통하여 알려졌으나 언중에 보편화된 성구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 Auge um Auge, Zahn um Zahn	눈에는 눈, 이에는 이 ⁵⁾
jm. ein Dorn im Auge sein	눈엣 가지다
ein Wolf im Schafspelz/-fell/-kleid sein	양가죽을 쓴 이리이다

그 외에도 서양의 중세의 문헌에서 인용된 소위 “날개달린 성구어” *geflügelte Worte*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알려진 어법 *Redewendungen*이다. 다음은 C. M. Wieland의 문헌에서 인용한 성구어다.⁶⁾

(2) den Wald vor lauter Bäumen	나무만 보고 숲을
nicht sehen	못 보다

세계적 문호 Shakespear의 작품 “Hamlet”의 제 1막 2장의 다음의 날개달린 성구어는 문학작품에서 유래한 고전적 성구어의 전형이다.

(3) mit einem lachenden und	한편 기쁘고
einem weinenden Augen	한편 슬픈 심정으로

4) 성구어간의 공통성은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가 동일한 제 3의 언어에서 유래된 경우에 잘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성구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에 수용되었는지는 별도의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5) 의미적 등가성을 갖는 한국어 성구어표현도 있다.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

6) Chr. M. Wieland: Musariond Buch 2

(1)~(2)의 성구어는 그 출처는 서로 다르지만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가 완전한 등가성을 갖고며 한다고 볼 수 있다. 성구어 (3)은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어휘소가 상이하지만 의미적으로 등가성을 갖고 있다.

2.2. 신체어휘 성구어

성구어 어휘소가 인간의 특성과 행동양식과 일련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DUDEN 11에도 신체어휘 성구어는 많이 등재되어 있다. 신체어휘 성구어는 많은 언어에서 생성의 역사가 오래된 것이며 양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하다. 이는 성구어의 특성인 의미의 은유성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신체어휘의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어휘는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어휘 성구어를 통하여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유사성이나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신체어휘 성구어는 전치사구의 구조를 가지고 부사적 기능을 한다.

(4) aus ganzem Herzen	진심으로
unter vier Augen (4 눈 아래서)	독대하여
von Kopf bis Fuß (머리에서 발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im Handumdrehen (손을 돌려서)	손바닥을 뒤집듯

부사 기능을 하는 성구어는 한국어에서는 성구어가 아닌 부사 단순 어휘소로 표현된다. 마지막 예인 “손바닥을 뒤집듯”은 어휘의 차이는 있으나 성구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성구어 *Verbalphraseologismen*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성구어보다 월등하게 많으며 그 구조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필수적 구성성분인 동사 구성요소가 상이한 종류의 명사, 형용사 및 부사나 또 다른 동사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어휘 성구어의 절대 다수가 동사성구어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한 신체어휘와 관련된 동사성구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1. Auge

눈은 시각기능을 담당하는 오관을 뜻하는 신체어휘로서 사전적 또는 외연적 의미와 인간의 인지나 이해를 상징하는 내포적의미를 가진다. 먼저 외연적 의미를 갖는 성구어는 보다 눈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5) seinen Augen nicht trauen	자기 눈을 의심하다
[große] Auge machen	눈이 휘둥그레지다
kein Auge zutun	눈을 못 붙이다
jn./etw. im Auge behalten/haben ⁷⁾	주시하다

이에 반하여 다음의 성구어는 눈의 인지, 이해와 판단력을 상징하는 내포적 의미를 갖는다.

(6) ein Auge für etw. haben	이해하다
ein Auge/beide Augen zudrücken	눈 감아 주다
Augen schließen/zumachen	눈을 감다(죽다)
jm. die Augen öffnen	눈을 뜨게 하다

2.2.2. Mund

신체어휘 입과 관련된 동사성구어의 절대다수는 외연적 의미 보다는 발언,, 언급, 의사 표현 등 내포적 의미로 사용된다.

(7) den Mund aufmachen	말하다
jm. den Mund öffnen	말하게 하다
jm. den Mund stopfen	말을 막다

7) Vgl.: Wir halten aber die Entwicklung der Krankheit(SARS) stets im Auge, um bei Bedarf schnell reagieren zu können.

개인의 구체적 발언이 아니라, 언중 안에서 말의 퍼짐이나 전달 양상을 표현하는 동사성구어도 있다.

(8) vom Mund zum Mund gehen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8') in aller Munde sein	인구에 회자하다

성구어 (8)의 경우는 성구어의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독일어 성구어가 한국어에서도 성구어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성구어의 핵 Kern인 신체어휘가 동의어 또는 유의어로 대체됨에 따라 문체적 표지 Markierung bung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9) den Mund halten (ugs.)	입 다물다 (통용어)
den Schnabel halten (ugs.)	입 다물다 (통용어)
das Maul halten (derb)	주둥아리 다물다(비어)
die Fresse halten (derb)	아가리 다물다(비어)
die Klappe halten (salopp)	입 뚜껑 다물다(속어)
die Schnause halten (salopp)	부리 다물다(속어)
den Rand halten (salopp)	주둥이 다물다(속어)

이와는 달리 동일한 성구어 어휘소가 상이한 문체적 표지를 가질 수 있다. 상기한 “den Mund halten” 성구는 통용어적 표지를 가지지만 다음의 성구어에서는 일상어적 normalsprachlich 표지를 지닌다.

(10) jm. den Mund verbieten	말 못하게 하다
jm. nach dem Munde reden	맞장구를 치다

2.2.3. Ohr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신체어휘 귀를 구성 요소로 하는 성구어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11) seinen Ohren nicht trauen	귀를 의심하다
die Ohren spitzen	귀를 쫓긋 세우다
jm. klingen die Ohren	귀가 간지럽다

다른 한편으로 이해와 아량의 내포적 의미를 갖는 동사성구어도 있다.

(12) tauben Ohren predigen	쇠귀에 경 읽다(우이독경)
ein offenes Ohr für jn. haben	청을 잘 들어주다

2.2.4. Hand

성구어의 구성성분은 대부분 어휘소와 의미가 동일한 구성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성구어 어휘소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개념적으로 상통한다. 신체어휘 “Hand”는 인간의 행위와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과 연관이 있다

(13) die letzte Hand an etw. legen	끝손질을 하다
frei Hand haben	자유롭게 행동하다
überall seine Hände im Spiel haben	도처에 관여하다
beide Hände voll zu tun haben	할 일이 많다
die Hände in die Tasche stecken	아무 일도 안하다

더 나아가서 더 협의로 긍정적 의미에서의 힘, 권리 또는 보호의 개념과 연계되기도 한다.

(14) etw. aus der Hand geben	포기하다
in der Hand haben	수중에 들어 있다
in js. Hände übergeben	누구의 수중에 넘기다
m. in die Hände fallen	수중에 넘어가다
etw. in die Hand nehmen	손에 넣다
seine Hand auf etw. legen	자기 것으로 하다

2.5. 기타 신체어휘

위에서 살펴본 신체어휘외의 다른 신체어휘 성구어를 동사성구어를 통하여 알아본다. 여기에서도 독일어와 한국어 동사성구어 간에 상당한 의미적 상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 jn. mit offenen Armen empfangen	쌍수를 들어 환영하다
keinen Finger krumm machen	손가락 하나 까딱 않다
etw. an den Haaren herbeiziehen	건강부회
jm. bis zum Hals herauswachsen	목까지 차다
jm. am Herzen liegen	심중에 두다
die Nase hoch tragen	콧대가 높다

기타 신체어휘가 성구어의 핵으로 나타나는 성구어의 대부분인 독일어와 한국어 동사성구어 사이에서 상당한 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드물게 둘 이상의 상이한 신체어휘로 이루어진 동사성구도 있다.

(16) Hand und Fuß haben	완벽하다
Hände und Füßen gebunden sein	꼼짝달짝 못하다
Mund und Nase aufsperrn	어안이 병병하다

2.3. 기타 성구어

고전적 성구어나 신체어휘 성구어로 분류할 수 없는 성구어로는 성구어적 직유가 있다. 성구어적 직유는 특정한 어휘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명시적 문장차원의 비교구조 없이도 비유관계가 의미차원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문장에서의 통사적 역할은 대개는 부사 규정어 나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 중요한 통사적 기본 구조에 따라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동사/형용사/부사 + **wie** + 명사

(17) einschlagen wie eine Bombe/wie der Blitz	폭발적으로 작용하다
zittern wie ein Espenlaub	사시나무 떨듯하다
behandeln wie einen Hund	개 콧구멍으로 알다
reden wie ein Wasserfall	폭포수처럼 말하다
treffen wie ein Blitz aus heiterem Himmel	청천벽력이다
zahlreich wie Sand am Meer	바닷가 모래처럼
gesund wie ein Fisch im Wasser	물 만난 물고기처럼 건강한
schnell wie ein Pfeil/ der Blitz	순살(번개) 같이 빠르게

2) 동사 + **wie** + 과거분사

(18) lügen wie gedruckt	그럴듯하게 거짓말 하다
antworten wie aus der Pistole geschossen	총알같이 대답하다

3) **wie** + 문장

(19) jd. redet, wie einem der Schnabel gewachsen ist.	거리낌 없이 말하다
--	------------

4) 명사 + **wie** + 명사

(20) der Kerl wie ein Baum	크고 힘센 사람
Zustände wie im alten Rom	형편없는 상태

성구어적 직유 외에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가 의미적 등가성을 보이는 동사성구어도 있다.⁸⁾

(21) etw. im Keim ersticken (싹을 질식시키다)	미연에 방지하다
den Faden verlieren (실을 잃다)	맥락을 잃다

8) 명사적 성구어의 경우: “der goldene Mittelweg(중용, 중도)”, “Faß ohne Boden(밑 빠진 독)”, “der lachend Dritte 어부지리”

ins Wasser fallen (물로 떨어지다)	물거품이 되다
Farbe wechseln (색깔을 바꾸다)	노선을 바꾸다
die Koffer packen (가방을 꾸리다)	떠나다
mit dem Feuer spielen (불을 가지고 놀다)	불장난 하다

한편 다음은 독일어 동사성구어가 한국어에서는 의미적 동가성을 갖는 한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四字成語) 성구어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22) ein Katzensprung sein	지척지간
aus der Not eine Tugend machen	화위복
das Kind mit dem Bade ausschütten	교각살우
rein in die Kartoffeln, raus aus den Kartoffeln	조령모개

3. 상이성

독일어권과 한국은 주어진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발전의 과정이 전혀 상이하다. 그 뿐 아니라 전통적 관습과 풍습도 확연히 상이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미 형성된(geformt) 표현인 성구어는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갖기 마련이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성구어의 상이성은 성구어적 직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23) alte Hase (늙은 토끼)	늙은 여우, 농구렁이
kein heurige Hase⁹⁾ sein (금년산 토끼)	햇병아리가 아니다
den Bock zum Gärtner machen (노루에게 정원을 맡기다)	고양이에게 반찬 가게를 맡기다

성구어 (23)은 모두 수렵과 연관된 사냥꾼 말 *Jagdsprache*에서 유래하였으나 한국어 성구어는 여우나 구렁이처럼 수렵과 무관하거나 병아리, 고양이와 같

9) *Hase*는 무서움이나 비겁의 전형적 상징이다(Vgl.: *Hasenpanier ergreifen*(도망치다), *ein Hasenherz haben*(겁이 많다)).

이 일상의 가축명이 성구어의 핵을 이룬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차이는 특히 다음 몇 종류의 성구어 종류에서 뚜렷이 찾아 볼 수 있다¹⁰⁾ 1) 성구어적 비유 *phraseologische Vergleiche* 2) 쌍둥이 표현 *Zwillingsformeln* 3) 기능동사구 *Funktionsverbgefüge*, 4) 어법 *Redewendungen*과 속담 *Sprichtwort*.

3.1. 성구어적 직유

공통성을 보이는 성구어적 직유와 마찬가지로 상이성을 드러내는 성구어적 직유도 “*wie + 명사*” 구조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후자는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 구성성분이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24) <i>treu wie Gold/ Augen</i>	개처럼 충직한 ¹¹⁾
<i>bekannt wie ein bunter Hund</i>	삼척동자도 아는
<i>dumm wie Bohnenstroh</i>	곰처럼 미련한
<i>stumm wie ein Fisch/Grab</i>	꿀 먹은 병어리처럼

또한 다음과 같이 독일어 성구어 구성요소인 직유의 대상이 한국어에서는 성구어가 아닌 부사구로 표현된다.

(25) <i>müde sein/zerschlagen wie ein Hund</i> ¹²⁾	매우 지치다
<i>arm wie eine Kirchenmaus</i>	핍어지게 가난한
<i>schwimmen wie eine bleierne Ente</i>	맥주병이다
<i>sterben/umfallen wie die Fliegen</i>	대량으로 죽다

한편, 성구어적 직유의 “*형용사 + wie + 명사*” 구조에서 흔히 동물명 *Tierbezeichnungen* 어휘소가 명사 구성요소로 나타난다. 이 동물명 어휘소가

10) 성구어의 분류는 여기에서 논외로 한다. Vgl. Burger/Buhofer/Sialm(1982)

11) 완전등가성이 인정되는 직유적 비유도 있다: *treu wie Hund/Haushund*(개처럼 충직한) Vgl. 예 (26)

12) Vgl. 이 성구어에서 파생한 형용사: *hundmüde*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에서 서로 다르다. 먼저 형용사 성구어에 등장하는 동물명 어휘소의 차이를 보기로 한다.

(26) <u>glatt wie ein Aal</u>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u>stark wie ein Bär</u>	황소처럼 힘센
<u>schlau wie die Schlangen</u> ¹³⁾	여우처럼 교활한
<u>klug wie die Schlangen</u>	개처럼 영리한
<u>sanft wie die Tauben</u>	양처럼 온순한
<u>faul wie eine Spinne im seinen Viertel</u> ¹⁴⁾	벧장이처럼 게으른
<u>fleißig wie Bienen</u>	개미처럼 부지런한
<u>hungrig wie ein Bär/Wolf</u> ¹⁵⁾	소 먹듯 하다
<u>treu wie ein deutscher Scheferhund sein</u>	진도개처럼 충직한 ¹⁶⁾

동물명이 성구어 구성성분을 이루는 동사성구어는 형용사 성구어보다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27) <u>arbeiten wie ein Pferd</u> ¹⁷⁾	소처럼 일하다
<u>wie Hund und Katze leben</u>	권원지간으로 지내다
<u>zwei Fliegen mit einer Klappe schlagen</u>	일석이조
<u>sich wie ein Lamm zur Schlachtbank führen lassen</u>	푸주에 들어가는 소처럼 끌려가다
<u>frieren wie ein junger Hund</u>	동태처럼 얼다
<u>es zieht wie ein Hechtsuppe</u> ¹⁸⁾	황소바람이 들어오다
<u>Schlange stehen</u> ¹⁹⁾	장사진을 이루다
<u>aus einer Mücke einen Elefanten machen</u> ²⁰⁾	침소봉대하다

13) 독일어와 한국어와 동물명이 일치하는 성구어도 있다: *schlau wie ein Fuchs*(여우처럼 교활한)

14) Vgl. *schlau wie ausgewachsene Schlangen*(능구렁이처럼 교활한)

15) Vgl. dephraseologische Substantive: *Bärenhunger, Wolfshunger*

16) 품종의 고유명사 onymische Eigennamen가 서로 상이한 경우이다.

17) 독축산업에서는 소는 우유와 고기의 공급원이고, 말은 일하는 주역인 반면, 농경 중심 환경에서는 소가 농사를 담당하는 데서 오는 차이로 판단된다.

18) “Hechtsuppe”는 구조상 합성어이지만, 이 성구어의 구성성분으로만 사용된다.

19) 약 18세기에서 유래함. Vgl. .K. Müller(1994) S. 527.

3.2. 쌍등이 표현

흔히 서로 두운 *Stabreim*이나 각운 *Endreim*을 이루는 동일한 품사의 두 어휘소가 접속사(대개 *und* 또는 *oder, weder...noch*) 또는 전치사(*in*)으로 연결된 구조를 쌍등이 표현이라고 한다. 두개의 다른 어휘가 쌍을 이루기 때문에 단어 쌍 *Wortpaar*이라고도 칭하는 쌍등이 표현은 의미를 강화하고 수사적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쌍을 이루는 두 어휘는 유관어(*Lust und Liebel mit Ehre und Gewissen/mit Pauken und Trompeten*), 동의어(*Grund und Boden/ null und nichtig/ ohne Sinn und Verstand*) 또는 반대어(*Freud und Leid/ das Wohl und Wehe/alt und jung*)의 관계에 있다. 쌍등이 표현의 구성성분의 구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별할 수 있다.

3.2.1. 형용사+ 형용사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성구어표현에서는 구성성분인 두 형용사가 서로 유의어나 동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한국어 성구어에서도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반복 *Reduplikation*이나 운을 이루는 어휘로 표현할 수 있다.

(28) <i>klipp und klar</i>	명명백백하게
<i>doppelt und dreifach</i>	이중삼중으로
<i>ganz und gar</i>	철두철미하게
<i>hin und her</i>	이리저리로
<i>kreuz und quer</i>	종횡무진으로

3.2.2. 전치사 + 명사 + 명사

구성성분 명사는 서로 대부분 동의어 관계에 있다. 의미의 강화하는 기능을

20) 두 가지 동물명칭이 구성성분인 독일어 성구어가 한국어에서는 동물명칭 없는 사자성어로 표현 된다.

하는 동의어 관계에 있는 성구어가 한국어에서 반복으로 표현되고 있다.

(29) mit Hängen und Würgen	겨우겨우
mit Fug und Recht	정정당당하게
auf Schritt und Tritt	방방곡곡에

독일어 성구어에서는 두운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의미적 등가성만이 있는 부사로 표현 된다.

(30) mit Haut und Haaren	털도 안 뽑고
mit Kind und Kegel	온 가족이 몽땅
bei Nacht und Nebel	야음을 틈타
in Bausch und Bogen	총체적으로
im Großen und Ganzen	대체적으로

각운을 이루지 않고 동의어로 구성된 독일어 성구어는 한국어에서도 운을 가지지 않는 단순한 부사어로 표현 된다.

(31) an Ort und Stelle	그 자리에서
auf diese Art und Weise	이 방법으로
in Hülle und Fülle	충분히

이와는 달리 반대어 관계를 가진 성구어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명사가 상호보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의 폭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2) auf Biegen oder Brechen	이판사판으로
auf Tod und Leben	사생결단으로
mit Leib und Seele	완전히 (몸도 마음도)

3.2.3. 명사+ 명사

명사나 부정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성구어가 대부분이며(33), 고유명사의 애칭 축소형 Koseform의 결합(34)으로 이루어진 성구어도 있다.

(33) Grund und Boden	땅, 소유지
Haus und Hof	재산
Groß und Klein	(노소) 누구나
weder Fisch noch Fleisch	죽도 밥도 아니다
(34) Hinz und Kunz²¹⁾	누구나
Krethi und Plethi	어중이떠중이

명사의 결합을 이룬 성구어가 부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다:

(35) Tag und Nacht	밤낮으로
Knall und Fall	즉각
wie Kraut und Rüben	뒤죽박죽

3.2.4. 동사 + 동사

동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독일어 성구어(36)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드물게 성구어로 표현된다.

(36) schalten und walten	좌지우지하다
zu beißen und zu brechen²²⁾	먹고 마실 것
alles, was da krecht und fleucht²³⁾	기고 나는 모든 것
hegen und pflegen²⁴⁾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21) 고유명사 *Heinrich und Konrad*의 애칭 축소형.

22) Grimm 형제의 동화에서 나옴: “Zeit genug hatten die beide, aber wenig zu **beißen und zu brechen.**”

23) 동사 “kriechen”, “fliegen”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의 고행으로 성구어로 쓰임: “Hier können Kinder die Natur erleben, fasziniert von allem, was **krecht und fleucht.**”

3.2.5. 동사성구어

쌍동이 표현이 동사성구어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쌍동이 표현의 두 어휘소가 동의어의 관계에 있는 성구어(37)와 반대어인 성구어(38)로 대별된다.

(37) Feuer und Flamme sein	열광하다
Kopf und Kragen riskieren	목숨을 걸다
durch Mark und Bein gehen	골수에 사무치다
jm. Rede und Antwort stehen	해명하다
hoch und heilig versprechen	호언장담하다
erstunken und erlogen sein	깜빡 속다
(38) Himmel und Hölle in Bewegung setzen	물불을 가리지 않다
nur noch als Haut und Knochen sein	피골이 상접하다
jm. in Fleisch und Blut übergehen	몸에 배다
sich grün und gelb/gelb ärgern	몹시 화내다

3.3. 기능동사구

기능 동사구는 흔히 동사의 확장형태 *Streckenformen des Verbs*이라고도 칭하는 독일어 특유의 표현양식이다. 독일어의 기능동사구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 (전치사구) 목적어가 기능동사와 결합한 동사구를 말한다. 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기능동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어 *Kollokation*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기능동사구는 동작상태 *Aktionsart*를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기능동사구는 의미적으로 기동(*inchoativ*: (39)), 지속(*durativ*: (40)), 작위(*kausativ* (41))와 수동(*passiv*:(42))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제한성이 뚜렷하지 않고 다만 수동적 의미를 갖는 독일어 성구어는 한국어에서도 수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에 국한되어 연어에 제한성을 확인할

24) 예문: "Lassen sie uns gemeinsam das yarte Pflänzchen Frieden zu einer richtigen Pflanze hegen und pflegen."

수 있을 뿐이다.

(39) ins Rutschen kommen außer Kontrolle geraten sich in Bewegung setzen	몰락하게 되다 통제할 수 없게 되다 움직이기 시작하다
(40) in Verbindung stehen in Geltung sein Dank sagen	접촉을 유지하다 유효하다 감사하다
(41) in Verwirrung bringen zum Halten bringen zur Aufführung bringen	혼란에 빠뜨리다 정지시키다 상연하다
(42) Beachtung finden Billigung finden zur Verteilung kommen Beifall ernten	주목받다 승인 받다 분배되다 찬사를 받다

3.4. 어법과 속담

성구어 가운데 언어사회의 민속적, 문화적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어법과 속담이다. 따라서 독일어와 한국어의 성구와 속담은 그 은유성의 근거나 원천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법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일상생활의 본보기가 될 귀중한 내용을 가진 짧은 어구로서 금언이나 격언에 해당한다. 가축 명칭이 구성요소로 나타나는 어법이 있다.

(43) das Kücken will klüger sein als die Henne da lachen ja die Hühne den Brunnen zudecken, wenn das Kalb hingefallen ist.	자식어기는 부모 없다 소가 웃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	---------------------------------------

그 외에 다음 어법은 개개 동물의 명칭은 아니나 총칭이 구성요소를 이룬다.

(44) die großen Fische fressen die kleinen	약육강식
Kleinvieh macht auch Mist	티끌모아 태산

독일어 어법의 구성요소인 신체어휘 *Ohr* 는 청각 기능의 사전적 의미와 이해능력의 내포적 의미를 가지며 한국어 어법에서는 신체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명칭이 구성요소가 된다.

(45) die Wände haben Ohren .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tauben Ohren predigen	쇠귀에 경 읽기
den Splitter in fremden Augen, aber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den Balken im eigenen nicht sehen	개를 나무라다

그 외의 어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46) wie man in den Wald hineinruft,	가는 말이 고와야
so schallt es heraus ²⁵⁾	오는 말이 곱다
jm. sind die Trauben zu hoch	연감생심 이다

어법과는 달리 속담은 이미 흔히 운이나 대등과 같은 문학적으로 각인된 한 문장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축약된 문장 구조를 가지며 주로 실생활과 관련한 교화적이나 계몽적 내용을 지니는 경향을 보인다.

(47) frisch begonnen, halb gewonnen	시작이 반이다
bitter im Mund ist dem Magen gesund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대부분의 속담은 문학 작품이나 성서와 고대로부터 차용이 많다. 상이한 언어 간의 공통적 속담은 반드시 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독일어 속담이 한국어로는 사자성어 성구어라는 독특한 어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25) 동의어적 어법도 있다. *wie du mir, so ich dir*

(48) Viele Hunde sind des Hasen Tod	중과부적
Gelegenheit macht Diebe	견물생심
Gut Ding will Weile haben	대기만성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상부상조
Gleich und gleich gesellt sich gern	유유상종

다른 독일어와 한국어 속담이 의미적 등가성이 있으나 성구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동물과 사람(48), 과수와 곡식(49)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9) das pfeifen die Spatzen von allen Dächern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이다
(50) Der Apfel fällt nicht weit vom Stamm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4. 맺는 말

어족과 언어유형이 상이한 독일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유사성 및 공통성과 상이성을 알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중심 과제이다. 유사성과 공통성은 우선 제 3언어인 고대나 중세의 격언이나 성서 또는 문학 작품에서 유래된 성구어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인류의 공통적인 상당한 신체어휘 성구어에서 성구어의 유사성과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인류의 언어사용에서 신체어휘가 은유적 의미로 처음부터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의 상이성에 있어서는 두운, 각운 등 운을 갖는 독일어의 쌍둥이 성구어는 운이 없는 한국어 성구어에서는 반복을 통한 몇 개의 성구어를 제외하면 성구어가 아닌 단순 어휘소나 단어 군으로 표현된다. 가장 뚜렷한 상이성은 직유를 통한 성구어적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성구어적 비유의 구성요소인 동물명이 독일어 성구어와 한국어 성구어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중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와 환경이 상이한데서 연유된 것으로 본다. 성구, 속담을 포함한 많은 독일어 성구어에 상응하는 표현이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자성어로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독일어 성구어가 한국어에서도 1) 성구어 2) 개별 어휘소 3) 해석적

단어 군으로 표현된다. 개별 어휘소나 해석적 단어 군에서는 의미상의 등가성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문화권내의 언어 사이의 성구어 연구가 제시하는 통계적 자료는 이 연구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한국어 성구어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는 또 다른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한국문화상징사전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서울.

Beyer Horst u. Annelies (1987): Sprichwörterlexikon. München.
Duden. (2003)⁷: Universalwörterbuch. Mannheim/Wien/Zürich.
Duden. (1998):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liche Redensarten. Mannheim.
Müller K. (Hrsg.) (1994): Lexikon der Redensarten. München.
Röhrich L. (1992): Das große Lexikon der sprichwörtlichen Redensarten. 3Bde. Freiburg.
Schemann H. (1991): Synonymwörterbuch der deutschen Redenarten. Stuttgart/Dresden.
_____ (1993): Deutsche Idiomatik. Die deutschen Redewendungen im Kontext. Stuttgart/Dresden.

2. 일반문헌

김원식 (1992): 현대 독일어의 쌍둥이 관용어. 언어연구소 18. 한국외대.
_____ (1995): 국어와 독일어의 신체어휘에 관련된 관용구 비교. 독일문학 55. 한국독어독문학회.
Bardosi V. (1982): Über die Notwendigkeit eines neuartigen phraseologischen Wörterbuches. In: FiliogiaKözlöny, 344-356.
Burger H. et al (1982): Handbuch der Phraseologie. Berlin.

- Czochralski J.A. (1979): Konfrontatives zur deutschen und polinischen Idiomatik. In: Deutsche Sprache im Kontrast. Tübingen.
- Eckert R. (1979): Aspekte der konfrontativen Phraseologie. In Linguistische Studien. Berlin, 74-80.
- Gottschalk K-D. (1975): Was ist idiomatischen Englisch? In: Linguistik und Didaktik, 139-148.
- Hessky R. (1980): Zur kontrastiven Untersuchung idiomatischer Wendungen. In: Kontrastive Studien Ungarisch-Deutsch. Budapest, 65-76.
- _____ (1981): Zur synchronischen Motiviertheit von Phraseologismen. In: Germanistisches Jahrbuch, 51-57.
- _____ (1987): Phraseologie. Linguistische Grundfragen und kontrastives Modell deutsch-ungarisch. Tübingen.
- Korhonen J. (1995): Studien zur Phraseologie des Deutschen und des Finnischen I. Bochum.
- _____ (1999): Deutsche und finnische Phraseologie im Kontrast. In: Wortbildung und Phraseologie. hsg. v. R. Wimmer.
- Mayer K. (1983): Vergleichende phraseologische Untersuchungen. In: Magyar Nyelvőr, 23-30.
- Raichstejn A.D. (1980): Kontrastive Analyse der deutschen und russischen Phraseologismen. Moskau.
- Schemann H. (1981): Das idiomatische Sprachzeichen. Tübingen (=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183)
- Wandruszka M (1979): Kontrastive Idiomatik. In: Festschrift für Kurt Baldinger zum 60. Geburtstag. Tübingen, 951-963.
- Wimmer. R.(Hrsg.) (1997): Wortbildung und Phrasologie. Tübingen.

Zusammenfassung

Kontrastive Untersuchung zu deutschen und koreanischen Phraseologisme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Gemeinsamkeiten und Verschiedenheiten –

Kim, Won-Sik(HUFS)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sowohl die Gemeinsamkeiten bzw. Ähnlichkeiten als auch Verschiedenheite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Phraseologismen festzustellen, wobei die interkulturellen Unterschiede der beiden Sprachgemeinschaften besonders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Dabei wird von den deutschen Phraseologismen ausgegangen und es werden die Entsprechungen in den koreanischen gesucht. Die Entsprechungsmöglichkeiten lassen sich wie folgt feststellen: 1) Gemeinsamkeiten von deutschen und koreanischen Phraseologismen (*Auge um Auge, Zahn um Zahn; Augen zudrücken*) 2) Entsprechung von deutschen Phraseologismen und koreanischen Einzelexemen (*Grund und Boden; Knall und Fall*) 3) Interpretation deutscher Phraseologismen in koreanische Sprache (*in Fleisch und Blut übergehen; eine Hände wäscht die andere*)

Ähnlichkeiten bzw. Gemeinsamkeiten bestehen vor allem in den Phraseologismen, deren gemeinsame Quelle auf die Übernahme desselben Kulturgut wie die Antike, die Bibel und die Weltliteratur zurückzuführen ist. Die Ähnlichkeiten zeigen sich auch bei den vielen somatischen Phraseologismen der beiden Sprachen, da manche somatischen Bezeichnungen die gleichen Symbolwerte haben. Hingegen beruhen Verschiedenheiten vorwiegend auf den interkulturellen Unterschieden der beiden Sprachgemeinschaften, die sich historisch-gesellschaftlich unterschiedlich entwickeln und keine Gemeinsamkeiten in Sitten und Volksbräuchen haben. Insbesondere bei den phraseologischen Vergleichen kommen viele Tierbezeichnungen als Einheit der Phraseologismen vor, die sich einander stark unterscheiden (*dt. arbeiten wie ein Pferd → kr. arbeiten wie ein Rind; dt. wie Hund und Katze leben → kr. wie Hund und Affe leben*). Die Zwillingsformeln der deutschen Phraseologismen sind im Koreanischen als Einzelexem oder durch die Reduplikation auszudrücken(*Haus und Hof; klipp und klar; mit Hängen und Würgen*). Einige Redewendungen und Sprichwörter im Deutschen entsprechen den aus 4-Buchstaben bestehenden Redewendungen im Koreanischen, die aus der chinesischen Kultur stammen(*viele Hunde sind des Hasen Tod; Gelegenheit macht Diebe*). Es sind natürlich manche Redewendungen bzw. Sprichwörter, deren unterschiedliche Ausdrucksweisen auf die interkulturellen Verschiedenheiten zurückzuführen sind (*die Wände haben Ohren; der Apfel fällt nicht weit vom Stamm*).

[검색어] 성구어, 속어, 관용어, 신체어휘, 동물명칭, 쌍둥이 표현, 대비언어학
Phraseologismen, Idiom, Somatismen, Tierbezeichnungen, Zwillings-formeln,
kontrastive Linguistik

김원식

138-79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진주 아파트 7-601
e-mail: wskim@hufs.ac.kr